

봉사는 함께 나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



재활의학과 의료진과 치료사가 함께한 2024 재활사랑나눔행사.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는 장애를 가진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다. 뇌신경재활, 척수신경재활, 근골격계재활 및 통증, 소아재활, 암재활 등으로 나뉘어 전문화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재단의 설립 이념에 따라 재활의학과는 1992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매년 봉사활동을 준비할 때면 늘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올해는 어떤 활동을 해볼까? 우리 재활의학과만의 전문성과 따뜻함을 담을 수 있는 봉사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으로 때로는 힘들고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봉사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를 선물할 수 있다는 설렘을 가져다준다.

1992년부터 봉사활동 펼친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는 경기도 광주의 향림원, 서울시 노원구의 나눔의 집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뇌병변 등 장애 아이들, 통증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치료봉사를 했다. 또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2013년부터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과 노원구 개미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연탄을 손에 들고 나를 때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연탄봉사를 끝내고 힘들고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면 연탄의 검은 색이 묻어 있는 신발, 옷 속으로 들어간 연탄가루 등 꼬질 꼬질하게 변한 내 모습에 웃음이 나온다. 하지만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뿌듯한 느낌은 봉사에 참여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것이다.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코로나19로 대면봉사가 어려워진 상황

에서 새로운 방법의 봉사를 계획했다. 취약 계층 노인들의 낙상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2년간 실버카와 보행위커를 전달했고, 2023년에는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들을 위한 진료와 평가, 보호자 교육을 진행했다. 진료가 끝난 뒤 보호자들이 남긴 진심 어린 감사의 글을 읽으며 다시금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떠올렸다.

2024년은 송파구 내 취약계층 중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의료상담을 진행했다. ‘의료진과의 만남’을 주제로 재활의학과 교수의 상담과 진료,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교육을 진행했으며, 겨울을 앞두고 방한용품과 신체계측기도 함께 기증했다.

봉사,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선물

봉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일처럼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이정훈 물리치료사.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박지은 작업치료사.



재활의학과가 2013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에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직원들.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다. 봉사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따뜻한 마음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장애인의 일상에 스며든 작은 변화, 노인들의 편안한 발걸음,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의 미소 그리고 연탄가루의 까끌거림에서 봉사 이상의 가치를 배웠다.

봉사는 이제 재활의학과와 일부라고 생각한다. 봉사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과정이다. 나눌수록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이 여정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다. 🍎

글 박지은 · 이정훈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팀 치료사